

# 전주매일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음 6월 5일) 제185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새만금 내부개발 촉매제... 남북도로 '첫 삽'

▶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서 기공식 열려

부안 하서면 관광용지서 군산 산업용지 연결  
9095억원 상당 사업비 투자 2022년 완공 목표

새만금 내부개발 핵심 인프라인 동서남북 도로망 착공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로와 철도, 신항만에 이어 국제공항 계획에 이르기까지 새만금내부 개발 촉매제가 될 인프라(SOC)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26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2면> 기공식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장관, 송하진 도지사,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해당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관광용지에서 군산시 새만금 산업용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26.7km(폭 6~8차로), 9,095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핵심축이다.

정부의 SOC 예산 축소와 약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부담으로 공사 발주가 지연되었으나, 지역정치권, 새만금개발청과 공조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

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시급성과 필요성 등의 설명을 통해 총사업비 협의를 2016년 10월에 완료했다.

남북도로 1단계(군산측 3~4공구, 12.7km, 6~8차로) 공사는 2016년 10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해 2017년 5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과 우선시공분을 착공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2단계(부안측 1~2공구, 14.0km, 6차로)는 조속한 공사 착수를 위해 올 하반기에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남북도로가 새만금산업단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의 주요 진입도로 역할을 함으로써 인근 주변부터 순차적으로 내부개발을 진행시킬 수 있고, 공사에 필요한 사석과 흙을 운반하는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조성원가를 인하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6일 오전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에서 기념 발파가 이뤄지고 있다.

남북도로와 더불어 새만금 내부핵심축인 동서도로(20.4km, 3,452억원)의 경우는 2015년 7월 착공해 현재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 중심에서 교차하는 십(十)자형 동서·남북 도로가 완성되면 새만금 내부로 물자와 인력공급이 원활해져 민간투자 유치 및 새만금내부개발 가속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고, 국정운영 5개년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 신항만 등 물류교통 조기구축을 포함 명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이번에 착공하는 새만금 남북도로는 이미 조성 중인 동서도로와 새만금 중심을 교차하여 새만금 내부개발을 본격화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새만금 심장

부를 향해 시원하게 뿜어나갈 남북도로가 그간 더디게 추진되던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확실하게 높이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향후 기획재정부 및 국회 단계에서 정치권과 공조하여 남북도로 2단계 조기착공, 국제공항, 신항만 등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계획연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군산세관 신조감시정 '전북 330호' 취항식

관세청이 26일 군산항 국제여객부두 부잔교에서 군산세관 신조감시정 '전북 330호' 취항식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광주본부세관장,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취항식을 가진 330호는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8개월에 걸쳐 제작된 최신행 고속 감시정으로 최첨단 항해 장비와 통신장비 탑재는 물론 고성능 CCTV 카메라와 야간 감시카메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통합항만감시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선체가 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돼 있고 스크류 없이 물을 분사해 추진되는 워터제트(water-jet) 2기가 탑재돼 시속 32노드(60km)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상단속 역할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 감시정은 군산항항 및 보령항 해상에 투입돼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수속과 선용품 적재 확인 등 관세 행정업무와 해상법률행위 단속을 위한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산=장현 기자

##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전주'를 선물하다

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 인프라 구축키로

전주시가 어린이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는 가운데 세계가 인정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관련사진 4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제를 구축한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시는 26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 송상준 부의장, 양영환 복지환경위원회장을 비롯한 시의원, 각 기관장, 아동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가졌다.

'전주를 아이에게 선물하다'를 주

제로 열린 선포식에서는 아동 권리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모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자랄 수 있는 전주 만들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향후 아동의 의견을 직접 전주시에 전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아동참여기구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로 아이들이 존중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권리 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아동영향평가를 적극 실시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시는 민선7기 공약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규정을 담은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

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5월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초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이들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따뜻한 아침도시락을 배달하는 '발 굵은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과 도서지원 등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혜의 반찬',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달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아이들을 위한 자

연 속 놀이터 '전주 아이숲', 365.24시간 운영 등 아이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라는 가치를 담아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아이들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달라 보인다. 도시의 높이도 색감도 크기도 어른들의 시선과 각도와는 사뭇 다른 세상이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는 아이들이 편한 도시는 우리 모두에게 편한 도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우리 아이들은 미래 전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며 "모든 아이들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존중받고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전주를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 전주시 생활안전 모니터단 발대

평소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위험요소를 찾아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주시는 26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생활안전 모니터단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365 생활안전 모니터단 발대식'을 가졌다.

모니터단은 앞으로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굴, 신고하고 매월 2회 주말과 공휴일을 활용해 재난취약지역을 찾아 합동예찰활동을 펼치게 된다. /인재용 기자

매일 INDEX

4면 - 광역쓰레기매립장 위원 추천 갈등

www.namwon.go.kr

광한루원, 구룡계곡, 뱀사골계곡,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월매를 사랑한 놀부, 남원예촌

맛과 멋이 특별한 남원의 여름

지리산 물소리에 몸과 마음이 시원~ 우리 가락에 어깨가 들썩입니다

남원시